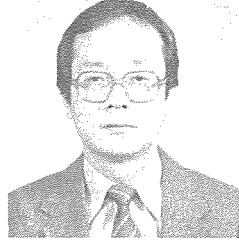


## 癌의 醫學 (上)



李 恒

---

암세포의 주인은 죽었으나 암세포는 죽지 않는다. 평범한 주부였던 헨리에타 렉스는 암에 걸려 1951년 불행하게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암세포(힐러세포)는 병리화자 조지 가이에 의해 배양되어 지금까지도 온세계의 의학자의 연구에 공헌하고 있다.

---

얼마전 까지만 해도 癌이란 무서운 질환으로만, 또는 致死病으로만 알고있었지 실제로 癌이 무엇인지 조차 몰랐고, 주변에 누군가가 癌으로 앓고 있다면, 결국 死刑宣告를 받은것으로 알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난감해 하던 시절이 있었다.

어디까지나 癌은 남이 걸리는 病이요, 나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했던것도 무리가 아닌것이, 癌의 診斷이 어려웠고, 설사 진단이 가능했다해도, 많은 경우에서 이미 때가 늦은 最終의 상태이

거나, 治癒를 기대하기 힘든 後期에 접어든 상태에서나 가능했었기 때문일것이다.

戰爭時에 死傷者가 많은 전투지에서 醫師의 손이 모자라는 입장에서, 손을 써도 가능성 없는 몇몇 患者만을 살려보려고, 時間과 노력을 쏟다가, 간단한 의료처치만으로 쉽게 생명을 구할수 있는 多數의 患者에게 치료의 손길이 닿지 못해 사망하게 두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아무리 개개인의 生命이 소중한다해도 多數를 위해 小數를 희생할 수 밖에

없다고 해도 용납될 수 있었다.

그래서 癌으로 診斷받는 患者는 저릿편에 놓여지고, 癌診斷은 곧 死亡宣告를 의미했던 것이다.

간혹, 어떤 患者가 가능성이 극히 낮은 完治를 위해 治療를 찾기로 했다 치더라도, 소위 「용」하다는 醫師를 주위에서 찾기가 쉽지않아 방방곡곡 헤메다니거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식으로, 極急한 상황에서 주위에서 좋다는 것이라면 아무거나 써보다가, 또는 효험이 의심되어 이것 저것으로 轉轉하여, 허약해진 신체에 별 오만가지 藥物과 「보약」을 다 써보면서, 이력저력 家産을 蕩盡하게 될 뿐만아니라, 빚더미에 앉을수도 있고, 家族에게 큰 被害만을 유산으로 남기곤 했던것이 현실이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癌에 걸렸다 해도 가족들은 흔히 이러한 사태를 파악해서, 그저 「현명」하게 포기하는 상태로 빠지게 되고, 흔히 환자에게 「사실」을 전하기 피로워 진단을 숨기고, 「최선」을 다하여 「하얀 거짓」으로 위로하고 간호하며 최후를 맞게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한 사람 등쳐먹는다는 격으로,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용」한 치료, 또는 「기적적」인 효험을 빙자하여, 사이비한 「약물」또는 「치료법」을 팔아 횡재하는 부류도 무수히 많았다. 이러한 추세는 非傳門人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계층에는 소위 「漢方醫」나 「洋醫」할것없이 聖스러워야 할 醫療, 宗教界에도 퍼져있었다.

간혹 自然經過의 과정에서 환자가 好轉될 수 있고, 「기분」이 나을수도 있고 해서, 奇蹟을 경험하고 싶은 환자나 가족의 心理를 이용하여, 그제험담에서 선전효과까지 얻어서, 몇몇의 사이비한 무리들이 더욱 횡재하게 되고, 결국 병세가 惡化한다면 환자나 가족이 「지시」대로 하지않았거나, 또는 「믿음」이 적어서 결국 효험을 잃었다는 편리한 責望으로, 자신의 危機를 쉽게 모면하면서, 계속 그 「훌륭한 奇蹟」을 行할 수 있었다.

우리의 옛이야기에 “도깨비에게 흑뱀러 갔다가 흑하나 더 부쳐서 돌아온다”는 말이 있다. 이 「흑」환자와 과거의 癌환자와의 유사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옛날 얘기를 막상 쉽게 웃어넘기기에는 씁쓸한 감을 금할 수 없다.

오늘날 역시 우리 社會에서 도깨비가 흑시 성행하지 않는가? 흑시 우리가 그 「도깨비」를 찾는 愚衆은 아닌가? 과연 그렇다면 患者 자신이 좀더 현명해지고,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본인들이 적극 참여하여 「제대로」의 「흑」治療를 行할 醫療機關을 모색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또한 「도깨비」를 대치할수있는 전문의료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흑」, 또는 腫瘍이란 모두 癌은 아니다. 양성종양도 있고 惡性종양도 있다. 癌이란 体内에서 變化를 일으킨 細胞가 계속 分裂하여 正常組織을 침범하는 惡性화된 細胞들의 疾患으로, 덩어리를 이루지 않는 白血球의 癌인 白血病등을 포함하는 2백종류 이상의 질환을 통칭하는 말이다. 실제로 여러疾患들이요, 그종류에 따라 질병발단의 組織이나 위

치가 각기 다르고, 다른 정상조직으로 파급되는 양상도 달라 증상도 다르고, 치료약이 다르고, 같은 약을 쓴다해도, 그 치유 반응도 다르다. 전이되는 양상에 따라 치료결과도 달라져 반드시 치료법이 달라진다.

같은 종류의 암이 걸린 환자가 여러명이 있다면 아무리 전이상태가 유사하다해도 치유반응을 다르게하는 각자 특유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환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고, 체질에 따라 다르고 인종에 따라 다르다. 이외에도 수많은 요소가 발견되어 왔고 앞으로도 암의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 더 많은 요소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요소를 이해하여 치료 방침 계획에 활용되어 이미 치료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미 누가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또 막연한 「암치료」를 받고 있다면, 「암」이란 질환으로서의 진단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어떤 종류의 암인가부터 알아져야하고 환자의 모든 특수성과 전이상태가 파악되어야 겨우 완전한 가까운 진단에 가까워지며, 이 「완전한」 진단을 내려야만 최선의 치료법이 결정될 수 있다. 기초과학과 일반의학의 발전에 따라 암에대한 지식이 계속 급속히 팽창하고 있고, 또한 치료방법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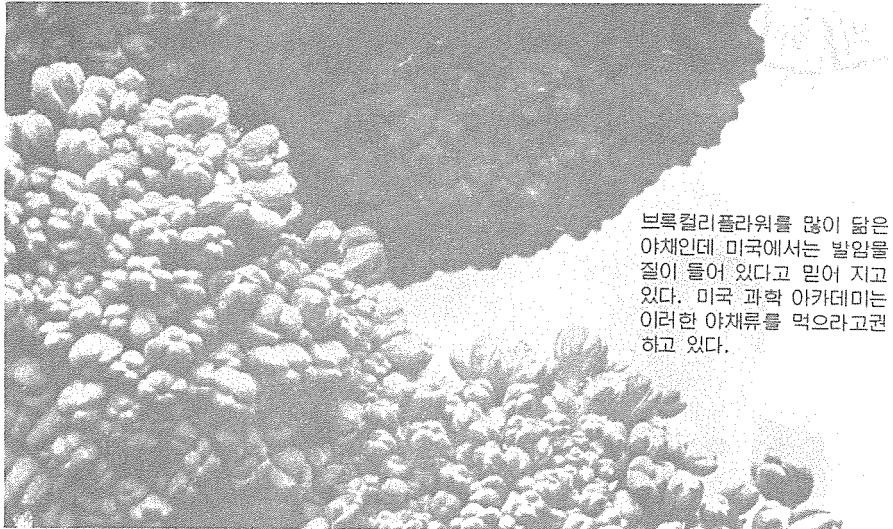
이러한 유동성이 있는 암의 지식과 그 활용을 통하여 치료법을 개선하여 환자의 생명보호와 연장된 생명의 質을 향상시키며, 암의 원인요소를 발견, 이해하여, 일반人口의 암예방까지 추구하는, 所謂「첨단의학」이 腫瘍學이다.

그래서 암은 급속히 팽창해가는 과학의 현시점에서 누구나 다룰 수 있는 질환이 아니요, 암을 다루는 경험과, 안목이 세워진 전문인에 의해 다루어져야하고, 미래의 발전을 감수하고 시행해야하나, 새로운 것이 남발하는 현대과학에서 좀더 신빙성 높은 지식을 가려내어 체계를 세워서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腫瘍學이란 특수 학문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질환이다.

따지고 보면 癌은 그 옛날 5천년전에 살았던 이집트사람의 미라에서도 발견되고, 더욱 소급해서 올라가 일백만년전 有史이전의 人類骨格에서도 발견된다. 아마도 「암」은 人類初期부터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암」의 의학은 醫學의 初期부터 의학의 중요한 일부로서 존재해 왔을것이다. 그리하여 腫瘍學이 「첨단의학」으로 등장하는 세시대의 입장이 어설뿐이 있다. 그러나 그 分化는 불가피하고 정당화 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人間이, 人間 환경과 함께 달라짐으로 해서 암의 양상도 변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달라지며, 오늘날 암은 우리 생활과 더욱 근접해 있기때문이다.

美国 東北部 海岸에서 魚夫들이 잡는 바다 물고기들에게 전과는 다르게 종양이 내장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産業이 발달하고 생활양상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人体도 변할수 있는 것이다.

예전 生命에 위협을 주던 많은 질환들이 억제됨에 따라, 死因으로서 後位를 차지했던 癌疾患이 점차로 先頭에 서기



브록콜리플라워를 많이 닳은 야채인데 미국에서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고 믿어 지고 있다. 미국 과학 아카데미는 이러한 야채류를 먹으라고 권하고 있다.

시작했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한 인간의 癌發生 위험기간이 역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腫瘍學을 외면하기 힘들게 되었다.

癌의 위험은 超現代의인데 反하여, 癌에 대한 지식과 癌治療대책은 原始的이라면, 우리가 「도깨비」를 찾는 「혹」환자와 별로 다를바가 없겠다.

우리는, 人間이 초래한 환경 변화로 피해만 받아 「癌」으로 죽어가야하는 물

고기와는 달라야한다. 우리는 우리가 창조한 변화를 조절하고 적응해서 이겨내려고 한다.




지난 시대의 존경하는 선배 醫師이자, 思索家인 「윌리엄 오슬러」 卿의 말씀을 빌린다.





“人間에게는 藥을 먹고 나오려는 欲求가 있다. 아마도 이것은 動物과 구별되는 큰 차이일 것이다.”

〈필자=한양의대교수·의박〉

## 생활지혜

### 기성복의 취급기호

-  ...30°C의 물로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손세탁 할 것
-  ...드라이크리닝을 할 것
-  ...다리미 온도 140°C~160°C로 할 것

-  ...다리미질 하지 말 것
-  ...짜지 말 것
-  ...옷걸이에 걸어 그늘에서 말릴 것
- T/C ...포리에스텔과 면의 혼방
- T/W ...포리에스텔과 모의 혼방
- T/R ...포리에스텔과 인조견의 혼방
-  ...K·S마크(정부 품질 보증 표시)